

# 모습 있는 자기는 모습 없는 자기를 진짜로 믿어야!

## 21면에서 계속

정이 나고, 어떤 것든 들이대면 그냥 활용이 되는 겁니다. 꼭 육체가 강을 건너가는데 한 걸음에 강을 때어 놓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강을 때어 놓을 때 한 걸음을 때어 놓아 우리가 그 부처님 자리에 한 도량에 든다고 했습니다. 한 걸음으로, 한 강을 한 걸음으로 때어 놓아 한 도량에 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데 조금도 정신계의 문제나 물질계의 문제나 같이 반반 섞여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럴 이해를 못하고 그냥 간다. 그런데 모두 물질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망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나기 때문에 그게 핑트가 안 맞는 거죠.

그러나 자기 모습은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으니 자기가 결정을 짓지 말고 모든 걸 주인한테, 주처한테 맡겨 놔라. 그러니까 일할 때는 행선이고, 앉았으면 좌선이 되고, 또 길거리를 다닐 때는 입선이 되고 누웠을 때는 와선이 되느니라. 그것이 조금도 그른 사이가 없이 요만큼도 틈이 안 나게끔 돼 있는 자체다. 그게 그냥 참선이다. 여러 가지로 따질 게 없이. 참선이나 우리 생활이 그냥 '도'니라. 우리 생활이 그냥 '도'니라. 이런 거예요. 우리 생활이 도지, 우리 생활 떠나면 뭐가 있느냐? 나가 떠나면 뭐가 있느냐? 하나도 없다. 모두 각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종교도 있다느니 진리도 있다느니, 부처도 있다느니 세상이 있다느니, 예고도 있다느니, 또 편안함도 있다느니 이런 게 모두 필요할 거죠.

### 장기 기증에 대해서

**문** 요즘 고도화한 과학으로 유전자 조작을 이용해서 생명체를 복제하고 질병을 치유하는데 유전자 조작으로 질병이 치유됐을 때, 치유되기 전의 그 업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요즘 뇌사자의 장기 기증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였을 때, 장기 기증자가 강도나 또는 살생한 업식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받은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요.

**답** 업식보다도요, 업식이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몸체를 볼 때에, 육등반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세포 하나하나가 모두 육등반으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그게 다 다르단 말입니다. 세포가 다르니까 틈들이 다르단 얘기예요. 틈들이 다르니까 아, 생김생김도 다른 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세포를 가지고서, 유전자를 가지고서 사람 병 치료를 한다 이래도 그 유전자의 의식은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판 데 있던 그 유전자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서도 변함없이 그 짓을 할 수 있다 이런 소립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해서 치료를 했는데 팔 줄도 풀렸던 사람이 아주 뽀짝뽀짝을 잘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는데, 수술을 할 때 그 유전자를 넣고 다리 부러진 그 틈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잘 팔까요? 그 유전자는 차원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조금 생긴다는 얘기도, 결부가 된다는 얘기도. 그래 좋지 않은 거는 모르지만 좋은 거는 지금 말해서 장땡이죠. 뭐, 좋지 않은 거는 또 좋지 않은 대로 세세생생에 나갈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좋은 거 반이라면 안좋은 거 반이 거기 속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대로 거기다 이식을 했다면 즉, 죽은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발전이 돼서 거기로 옮겨졌다면 그건 정말 우리가 마음공부를 해서 자동 컴퓨터에서 지원된다면 별 문제지만 지원되지 못한다면 그건 대대로 내려가죠. 문제가 대대로 내려

“  
우리 자체가 바로 불성 자체, 별성의 근본이기 때문에 에너지통이 바로 자기 안에 들어 있다는 얘깁니다.”

려갑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내려가는 거를 우리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를 제거할 수 있다. 좋든지 나쁘든지 좋은 거는 좋은 것대로 승화시키고 나쁜 거는 없애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두뇌에 자동적으로 컴퓨터가 돼 있습니다. 입력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입력이 돼 있어서 현실에 나오는 거를 반드시 나올 때 거기다가 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입력은 없어지면서 새로 입력이 들어가는 대로 나온다 이런 소립니다.

지금 바깥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예기한 겁니다. 근데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공식(供食)으로서 공용(公用)으로 이걸 싸잡아서 해결을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자기부터 알아서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이 생명체들의 생각들도 조절해줄 수 있는 능력이 참부가 돼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먼저 알아가는 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에너지를 키우려면

**문** 요즘의 세상은 정보를 뺏기고 뺏는 시대입니다. 컴퓨터를 켜기만 하면 내가 하는 모

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새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자기들끼리 교환을 하면서 사람들의 행동과 마음까지 리드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컴퓨터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족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들어 더욱 내 안의 에너지를 키워서 벗어나는 이 마음공부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 내 마음의 에너지통을 키워서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을 뺏기지거나 휘둘리지 않으면서 모두에게 이익을 주면서 살아 가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요?

**답**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도리를 완전히 알아야만 되겠다 이겁니다. 조그만 거, 이렇게 부실한 거 가지고서 논의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누르고 삽니다. 그렇듯이, 우리 자체가 바로 불성 자체, 별성의 근본이기 때문에 에너지통이 그냥 여기 들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작으나 크나, 차원이 높으나 낮으나 그거를 알고 진행한다 하면 그냥 자기가 자꾸 크게 만드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아쉬우면 꺼내 쓸 수 있는 거, 전력을 그냥 꺼내 쓸 수 있는 거. 그것이 에너지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구 바깥에, 우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자체 내에 있기 때문에, 내 자체 내에 그 문이 있기 때문에, 문으로 끌어들이 수 있던 얘기도. 그러니까 이 속에, 안쪽 속에는 에너지를 발현할 수가 있고 이 거쪽에 속하는 데는 에너지를 발생해서 쓸 수 있는 데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눌렀을 때 이걸로도 변하게 하고 이걸로도 나오게 하고 저걸로도 나오게 하고, 부산으로도 갔다가 제주도로도 갔다가 이렇게 누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천국에도 갔다가 지옥에도 갔다가, 서울로 왔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대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컴퓨터에 하는 사람들이 남한테 뺏길 필요도 없고 뺏을 필요도 없이 아주 성스럽게 살 수 있는 문제가 생기죠. 지금은 약과 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싸우게 해서 재미를 보게 모두 했거든요. 그러나 약과 선을 안 넣어도 재밌는 구질이 구질구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세상에 인간이 미생물로 인해서 조그맣게 생명이 생겨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진화가 되고 사람까지 몇 번씩 태어나도 그냥 그 자리를, 지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세생생, 우리가 지금 이 지구 안에서 벗어난다면 세세생생을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도. 어디에 갇혀서 우리가 산다고 보세요. 병 속에서 갇혀서 산다 이런다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답답함을 느끼죠.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니지만, 구속받지 않고 날아다니지만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거를 내가 갖는 거보다도 모든 걸 주는 거, 주는 세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이지 그건 천국이죠. 자연적으로

천국이 되죠. 왜냐하면 요만한 애들도 그렇고, 이만한 애들도 그렇고, 늙어도 그렇고 다 천국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날까지 그렇게 공격하게 싸우고 살아왔기 때문에, 뺏고 뺏어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계까지 뺏으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뺏고 또 뺏기고 이러지 말고 서로 줄 수 있고, 서로 받을 수 있고, 서로 주지 않고도 살 수 있고...

이 사람이 먹는 걸로 인해서 더군다나 더 싸워지는 문제도 있죠. 먹는 걸로 인해서 싸우고 죽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게 활짝 벗어난다면 먹고 살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에너지가 왜 필요한데요? 우리가 에너지가 없으면 그냥 송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에너지라고 이름을 해 났으니까 그냥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진리라는 거, 이거

“  
자기 모습은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으니 자기가 결정을 짓지 말고 모든 걸 주인한테, 주처한테 맡겨 놔라.”

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는 것은, 지구가 만약에 버스타든지 배라고 한다면 그런 데에 결상을 전부 넣어 놔서 그 결상 하나 가지고 이거는 무슨 종교 이거는 무슨 종교 이라고 싸우는 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은 이름이지, 그 종교가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어떠한 말로든지 동일하게 부를 수 있는 그 진리, 진리를 우리는 숭상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우리 진리에서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나왔고 진리에서 진화가 됐고 진리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융통성 있는 인간으로서 이게 발전을 했으니까요.

인간이라 할지라도 진짜 인간으로서 활짝 벗어난 못했다 이런 소립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나라 그리고 그렇게 그냥 당치 않은 어릿장상을 부리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따진다 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저 거들거들 고생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살다 보니까 40이 넘고 50이 되더라. 50이 돼서 '애들하고 어떻게 좀 살아 봐야지.' 하고 살다 보니까 머리가 벌써 허렇게 늘었더라. 이러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도 그냥 에너지로 다 그냥 원소가 있었다면 그렇게 구석구석 모를 텐데 부모의 은공으로서 몸을 받았단 말입니다.

다. '이렇게 너는 몸을 받아 가지고 이 세상에 모두 살아나갈 때 어떻게 어떻게 살아나가며, 어떻게 세어 되며, 어떻게 앉아야 하는지, 어떻게 누워야 하는지, 어떻게 일할 해야 하는지 그것도 좀 알아라.' 하고 했는데 늙는 것도 잘 모르고 자는 것도 잘 모르더라 이런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하직하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이걸 알아야 하는데, 죽기 전에 알아야 하는 거지 죽은 뒤에 내가 공부하 되느냐 이겁니다.

부딪침이 있어야 공부가 되죠. 서로가 있어야 공부가 되죠. 그래서 죽은 영(靈)들을 왜 탐에다 모셔놓든가 그렇게 해 놓고 공부를 시키게끔 하느냐. 우리 자손들이 화장을 시켜서 탐에다 우리를 그렇게 모신다면 그 자손들이 공부하는 대로 그걸 배울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잠시잠시 들고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그냥 병 속에서 나가듯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 자손들이 그거를 알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생전에 벌써 병을 다 부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갈 때도 나가는 문이 없고 들어올 때도 들어오는 문이 없더라.

그러니까 자재권이라는 것은 나한테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뺏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재하더라. 그러니까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어디든지 권리가 있다. 어디든지 가서 같이 할 수가 있고, 어디든지 가서 분류할 수가 있고, 어디든지 가서 이거는 바꿀 수가 있다 이겁니다. 색상을 바꿀 수가 있다. 모습을 바꿀 수가 있다. 바꿀 수 있는 세상에서는 바꿀 수 있어야만 살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막말로 뱀이다 개 구리다 뭐 다른 짐승이다 이렇게 할 때 서로 접촉도 안 해 봤는데 사람이 거기 딱 들어가 보세요. 저항력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쪽도 아주 겨냥을 단단히 하고 그렇게 저항력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는 어떤 걸로든지 건지려면, 돼지를 건지려면 돼지가 될 수 있어야 하고 너는 어떤 거든지 건질 수 있어야만 된다. 여자가 되면 여자가 될 수 있어야만 되고 창녀로 있는 거를 건지려면 창녀가 될 수 있어야 하고, 창녀 속에 들어가서 창녀가 될 수 있어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그렇지 수가 없는 거죠. 해어릴 수가 없는 거죠. 닥치는 대로니까요.

여러분이 내가 말하는 걸 복잡하게 듣지 마시고요. 좀 간편하고 쉽게, 그냥 쏘쏘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느슨하게 풀어 놓으시고, 허리띠를 너무 꼭 매면 체하기도 쉬우니까 조금 느슨하게 활렁하게 좀 매 놓으시고, 흘러내리지만 얇게 하시고 사신다면 그게 얼마나 유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이지 허리띠를 꼭 매고 일을 할 때는 꼭 매야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죠.

### 동양학의 명문 대유학당

생활 활용 CD

#### 전문가용 하락리수 CD

생년월일시를 입력 하자마자 사주 간지와 선천운 후천운을 즉시 확인하는 물론 12조건에 따른 길흉을 클릭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명생운에 이어 대상은 년운 월운 일운까지도 세세히 볼 수 있고, 참평결과 주역점, 궁합점수 등이 추가된 종합 주역운세품이입니다. 아울러 토정선생의 토정수를 활용한 토정괘(384괘 또는 144괘)를 얻어서 실제 년운에 대입해 봄으로써, 하락리수 년운과 비교해 운명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 가격 400,000원 총괄 : 윤상철, 2006년 9월 중보.  
※ 구성 : CD 1매, usb라, 프로그램 매뉴얼, 오운육기,궁합, 육효, 인쇄 가능

#### 전문가용 재미두수 CD

삭망일 군사차 인명저장 등 각 학설에 따른 몸선기능과, 재미두수 성요에 대한 각 서적의 내용 일러한 설명기능, 대한 소한 태세 율건까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미두수의 특성상 종합적인 운세품이 설명은 없습니다. 기문과 육효의 포국보조프로그램 등으로 더욱 자세해졌습니다.

※ 가격 400,000원 총괄 : 김재운, 2006년 3월 중보.  
※ 구성 : CD 1매, usb라, 프로그램 매뉴얼, 명리, 기문, 육효, 육임의 명반, 인쇄 가능

#### 전문가용 속임 CD

삼전조식된 육임식반과 더불어 9종 10과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통해 육임공부를 할 수 있고, 720과에 대해 좋은 궁명 가정 형인 투자 등 각 25개 항목으로 나누어 육임점의 가부길흉이 단답형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육임입문 123의 번들 CD를 보완하였습니다.

※ 가격 100,000원 총괄 : 윤상철, 2006년 6월 중보.  
※ 구성 : CD 1매, usb라, 프로그램 매뉴얼, 기문 명반

하락리수와 재미두수를 함께 구입하시면 전문가용 육임 cd를 드립니다.

문의 : (02) 2249-5630 / 563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국민 807-21-0290-497(윤상철)  
[www.daeyou.net](http://www.daeyou.net)